

공중버섯전골 김응요 본부장
전산경력과 경영철학을 통해
'인생'을 꿈꾸다

'엘리트 의식, 자존심을 버려라. 그리고 손님 의 마음, 주는 마음,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라!'
20년 전산 경력을 가진 김응요 본부장이 공중버섯전골을 창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다.
'83년 육군본부 중앙전산처리소에서 근무하다가 '86년 중앙고속 전산실 창설 멤버로 입사한 후 17년 동안
재직하여 실장의 자리에 오른 김응요 본부장은 20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2년 공중버섯전골을 창업하였다.

취재 / 전동근 편집장 사진 / 김선주 차장

정

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몸담아 온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 김응요 본부장은 '재고가 없어야 한다, 현금화가 되어야 한다, 건강식이며 여성 중심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명제에 요식업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궁중버섯전골 본점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11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김응요 본부장의 성공 비결은 3년 동안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다. 또한 창업 전부터 웰빙 문화를 예측하고 신선하고 살아있는 버섯을 재료로 한 건강식단을 준비하였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다

버섯 불고기 전골을 비롯하여 버섯 산낙지 전골, 버섯 해물모듬 전골, 버섯 만두 전골은 궁중버섯전골의 대표적인 메뉴로 각각의 특징 및 궁합, 효능을 자랑한다. 특히 버섯은 항생물질 및 혈당강하 물질, 콜레스테롤 감소 물질, 신경보호 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어 암과 동맥경화, 고혈압, 퇴행성관절,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김응요 본부장은 이러한 버섯에 음식 궁합을 맞춘 산낙지나 해물, 불고기 등을 곁들임으로써 버섯의 기능 및 효과를 증진시키는 한편, 직접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취향 및 나이를 고려하여 몸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요식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손님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응요 본부장의 요리 철학은 또 있다. 새벽시장에 나가 제철에 따른 가장 좋고 신선한 재료들만 선택하고, 모든 음식을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직접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조리방법 및 세팅, 식재·부식재 보관



및 운영방법 등 별도로 주방장을 두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교육과 함께 홍보, 판촉, 행정, 세무에 이르는 영업교육, 그리고 초기 영업 안정을 위한 컨설팅 및 서비스 등의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버섯의 경우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등 원재료 및 공산품을 본점에서 직접 공급하고 있다.

20년 전산 경력과 노하우, 창업 성공의 지름길

'손님은 주인님'이라는 경영방침으로 창업한 후 2년 동안 빠른 성장을 보여준 김응요 본부장은 20년 동안 전산 분야에 재직하면서 배운 모든 방법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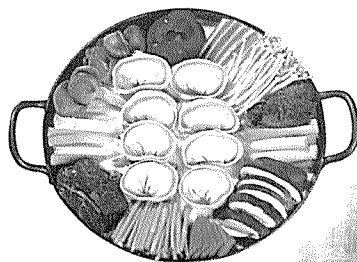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정보와 급변하는 전산 업무를 파악하거나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얻은 기획 및 영업, 재무회계, 원가관리, 홍보, 고객관리, 내부 인적관리 등의 기술을 모두 접목시켜 소규모의 회사라는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김응요 본부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장 동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노력과 직접 주메뉴를 만들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확실한 내부관리 등을 창업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기획, 영업, 재무회계, 원가관리, 홍보, 고객관리 등 이론적인 경험이 풍부한 전산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 창업을 하는 경우 보다 폭넓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창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단순한 컴퓨터 엔지니어보다는 회사 한 분야의 경영자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도심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하며 건강식 위주의 요식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김응요 본부장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그리고 한 발 더 앞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철학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당당하게 그 꿈을 이루어냈다.



병버섯불고기



만두전골

